

출처 <http://www.worldpoultry.net>  
University of Georgia 2009년 6월 10일

## 조류독감 바이러스 물속에서 150일 생존 가능

Bird flu can survive 150 days in water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물 속에서 150일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지아 대학 연구팀은 조지아 대학 연구팀은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물 속에서 150일 동안 생존한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는 조류들 간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직/간접 전염을 보여준 첫 번째 연구로 야생 조류들에서 조류 독감이 어떻게 발병하게 되는지 밝혀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자연환경에서 조류들 간에 바이러스 전염은 드문 현상이나 이번 연구가 자연에서 발병의 주요원인을 밝혀낸 것”이라고 연구팀의 로하니(Rohani)박사는 말했다. 그는 “자연 환경에서의 전염에 대한 가능성을 무시한다면 조류 독감 발생의 확률이나 규모, 지속 시간에 대해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전한다.

로하니 박사는 현재까지는 조류독감발병이 조류독감에 감염된 물새들로부터 배출된 배설물과 주변 오염된 물로 인한 직접 전이만 고려해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UGA 대학교 수의학과 연구진들은 몇몇의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물 속에서 150일 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현재 감염된 조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속의 바이러스로 인해 조류독감이 발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바이러스는 인간에 발병을 유발

하지 않은 병원성이 낮은 것으로 조류에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유전자 교환에 따라 병원성이 증가하여 조류의 집단 폐사와 인간에게 감염의 위험을 줄 수 있는 종이라고 공동 연구저자인 존(John) 박사가 설명했다. 게다가 바이러스의 환경 저항성을 고려해 연구진은 호수의 크기나 감염된 조류가 접근할 확률 등 다양한 변수를 따져보았으며,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을 섭취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조류 독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혀내면서 조류독감의 잠복기가 길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연구진들은 조류독감의 잠복기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일반적으로 약 염기의 pH를 띤 17°C 정도의 약간 소금기가 있는 물에서 가장 안정화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함께 연구를 진행한 Brown 박사는 조류 독감 전염과 관련해 환경이 가지는 역할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연구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철새의 이동 등 조류 독감 호스트의 생태학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환경적 측면에서 조류 독감의 전염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